

## **Hopes for Improvement in Korea-Japan Relations**

By Ambassador Thomas Hubbard

[Published June 19, 2019 by Dong-A Daily]

When I visited Seoul a few weeks ago to meet with private sector leaders in my capacity as Chairman of the Korea Society in New York, the news was dominated by international challenges. With dialogue with North Korea at a standstill in the wake of the failed Hanoi summit, Kim Jong-un was presiding over missile tests that threatened to take us back toward confront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t the same time, US-China trade talks were breaking down, threatening a prolonged trade war that would damage global prosperity. And from Washington we were hearing rumbles of potential war with Iran.

Faced with such challenges, my Korea Society colleagues and I were somewhat surprised that the first issue many Korean leaders raised with us was something closer to home – Korea-Japan relations. Business leaders were deeply worried that Korea-Japan relations had fallen to a new low, and neither government seemed to be able to do anything to stop the deterioration.

In the past, close ties between business leaders had tended to mitigate frictions at the official level. But we were told that this year for the first time Japanese business leaders had declined to come to Korea for their scheduled dialogue, citing discouragement by the Abe government as well as their own frustration over Korean court cases calling for corporate compensation for forced labor during wartime. And just as the North Koreans were threatening both South Korea and Japan with new short-range missiles, Korean and Japanese military leaders were arguing over who was at fault over an accidental near-miss encounter at sea by a Korean ship and a Japanese military aircraft. The question put to us was whether there was anything Americans could do to help our two allies in Northeast Asia resolve the tensions.

My basic response was that only Koreans and Japanese can manage their bilateral relationship. Only they can overcome the historical and cultural issues that divide them to focus on the many interests they have in common. But Americans have a deep stake in their success.

For America, Korea and Japan are treaty allies to whom we are deeply committed. Our trilateral defense interests are closely linked. We all want peace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and our forces are directed in the first instance toward the North Korean challenge. When it comes to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we are all in this together, and it is crucial that our militaries be able to work effectively together as we face the North Korean challenge. The Japanese recognize that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is central to their security. Koreans should also recognize that US forces based in Japan are central to the US ability to fulfill our commitments to South Korea.

All three of us are seeking engagement with North Korea in different ways with varying degrees of success.

More broadly, the three of us are successful democracies whose prosperity depends on free and open markets in the Asia-Pacific region. All three countries will benefit if China can be brought fully into the rules-based economic framework that we have worked hard to build.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history, shouldn't we be working together to coordinate approaches to North Korea and fend off other global challenges rather than arguing among ourselves?

The US has long worked to promote better communication between our two allies in Northeast Asia. I personally spent countless hours in the 1990's working with Korean and Japanese colleagues on North Korea. At a higher level, President Obama worked hard to strengthen trilateral ties, and in his first two years in office President Trump has brought the two leaders together at a number of international meetings.

President Trump will be traveling to both Korea and Japan later this month, and President Moon is also expected to visit Japan for the G-20 meeting in Osaka. There will be many opportunities for direct meetings in the coming months. Friends of both countries will be greatly relieved if some improvement in Korea-Japan relations can emerge from this process.

## 한일 관계는 한국인과 일본인만이 관리할 수 있다 [세계의 눈/토머스 허버드]

토머스 허버드 전 주한 미국대사

입력 2019-06-19 03:00 수정 2019-06-19 09:2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619/96056975/1>

미국 뉴욕 한국소사이어티 이사장 자격으로 민간 인사들을 만나기 위해 몇 주 전 서울을 찾았다. 당시 뉴스는 국제적 도전에 관한 사안으로 도배됐다. 2 월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실패로 비핵화 협상이 교착된 상태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반도를 대결 국면으로 돌려놓겠다고 위협하는 미사일 실험을 감행했다. 동시에 미국 중국 간 무역협상이 결렬되면서 국제 번영을 저해할 장기간의 무역전쟁 우려도 커졌다. 한편에서는 이란과의 전쟁을 야기할 혼란스러운 소식들이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한국 지도층 인사들이 한국소사이어티의 동료들과 나에게 제기한 첫 번째 이슈가 국내적인 것이었다는 사실은 다소 놀라운 일이었다. 그것은 한일 관계에 대한 것이었다. 비즈니스 리더들은 한일 관계가 전례 없이 악화했고, 양국 정부 어느 쪽도 이런 악화를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을 깊이 우려하고 있었다.

과거에는 양국 비즈니스 리더들의 친밀한 관계가 정부 차원의 갈등을 경감시켜주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올해 사상 처음으로 일본 쪽 비즈니스 리더들이 예정된 대화 참석차 한국에 오는 것을 거절했다고 들었다. 이들은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징용에 대해 기업 보상을 요구하는 한국 법원에 대한 좌절감, 아베 신조 정권이 느낀 실망감을 언급했다고 한다.

북한이 새로운 단거리 미사일로 한국과 일본 모두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양국 군사 지도자들은 한국 해군 함정과 일본 초계기가 돌발적으로 마주쳐 위기 일발 직전까지 갔던 일을 놓고 누가 잘못했는지에 대해 논쟁하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은 동북아의 두 동맹국이 긴장을 해소하도록 미국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여부였다.

나의 기본 답변은 "한국인과 일본인만이 양국 관계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만이 한일 양국을 갈라놓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 깊이 관계를 맺고 있는 동맹국이다. 국방 분야에서 3자의 이해관계는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우리 모두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를 원한다. 우리 군대의 첫 번째 대응은 북한의 도전을 향하고 있다. 한반도 안보에 모두가 함께하고 있으며, 한미일 3국 군대가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본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그들의 안보에도 핵심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한국인 역시 주일 미군이 미국의 방위 공약을 이행하는 데 핵심임을 인정해야 한다.

3국 모두 다양한 수준으로 대북 관여정책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보다 광범위하게 3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유롭고 열린 시장에 기반을 두고 번영해 온 성공적인 민주주의 국가들이다. 열심히 노력해서 구축한, 법질서에 바탕을 둔 경제적 체제에 중국이 완전히 참여할 수 있다면 모두가 이익을 얻을 것이다. 역사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서로 논쟁하기보다는 대북 접근을 조율하고, 또 다른 글로벌 도전들에 맞서기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하지 않겠는가.

미국은 동북아의 두 동맹국 간 더 나은 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개인적으로 1990년대 북한 업무를 다루는 한국 및 일본 동료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다.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은 더 높은 레벨에서 3국 간 유대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취임 이후 국제회의에 한일 양국 지도자들을 참여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 앞으로 한일 정상이 직접 만날 기회가 많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일 관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면 양국의 친구들은 크게 안도할 것이다.

토머스 허버드 전 주한 미국대사